



코로나19 이후 소득계층별 물가 상승률 차이

이태열 선임연구위원

요약

- 코로나19 이후 소득계층별로 우리나라 가계가 느끼는 소비자물가의 상승 정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해보고자 함
 -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구성의 차이를 통해 각각의 물가가중치를 산출하고, 소비자물가의 항목별 물가지수를 대입하여 소득계층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추정하고자 함
- 「가계동향조사」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자료를 근거로 소득계층별 물가가중치를 산출한 결과, 주거비, 식료품, 교통, 교육, 보건 관련 항목에서 소득계층별로 가중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
 - 이들 항목에서 물가 불안이 발생하면 소득계층별 물가 상승률의 차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
- 소득계층별 물가가중치가 큰 5개 항목들의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, '식료품·비주류음료' 항목의 물가상승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타남
 - '식료품·비주류음료' 물가는 2020년 하반기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2020년 9월에는 2020년 1월 대비 11.60%나 상승하며 '주택·수도·전기 및 연료'(1.99%), '보건'(0.64%), '교통'(2.63%), '교육'(-2.37%)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임
- 코로나19 이후 소득계층별 소비자물가 추이를 산출한 결과,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음
 - 2020년 1월 대비 2021년 9월 상승률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가 3.60%, 2분위 3.26%, 3분위 3.09%, 4분위 2.88%, 5분위는 2.66%로 나타나 1, 5분위의 차이는 0.94%p로 나타남
 - 코로나19 이후 초기에는 고소득층의 가중치가 높은 '교통'부문의 물가 하락, 이후에는 저소득층의 가중치가 높은 '식료품·비주류음료'의 높은 물가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남
- 코로나19 이후 핵심적인 경제 목표 중 하나가 취약계층의 구제에 있는 만큼 이들 계층의 소득 여건뿐 아니라 물가 등 소비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임
 - 주요 농축수산물과 에너지 관련 공공요금 등에서 물가 압력이 구조적으로 누적되지 않도록 관련 수급 및 산업 정책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



1.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

○ 2021년 소비자물가는 4월 이후 2%대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면서 불안한 추이를 보여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세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고 있음(그림 1) 참조)

-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.5%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, 2021년 4월 전년 동월 비 2.0%를 기록한 이후 2%대를 지속하다가 9월에도 2.5%로 나타남
 - 미국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월 이후 5%대를 유지하면서 9월에는 5.4%를 기록했으며, EU의 경우도 9월 물가 상승률이 3.4%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
- 이러한 물가 불안은 통화량 증가, 물류 공급 차질, 주택 매매 및 임대 가격 상승,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하고 있어 향후 어떠한 추세를 보일지 예상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
 - 특히, 높은 물가 상승은 그 자체로 경제 주체들의 실질구매력을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경제 여건 개선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

〈그림 1〉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

(단위: 전년 동월 비 %)



자료: 통계청

○ 본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소득계층별로 우리나라 가계가 느끼는 소비자물가 상승 정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해보고자 함

- 본고는 「가계동향조사」가 발표하는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의 구성을 활용하여 각각의 계층에 대해서 소비자물가 가중치를 산출하고자 함
-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구성의 차이를 통해 각각의 물가가중치를 산출하고, 소비자물가의 항목별 물가지수를 대입함으로써 각각의 계층에 대해 소비자물가지수를 추정하고자 함
- 소득계층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바탕으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직전인 2020년 1월을 기점으로 2021년 9월까지 소득계층별 소비자물가가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지 알아보하고자 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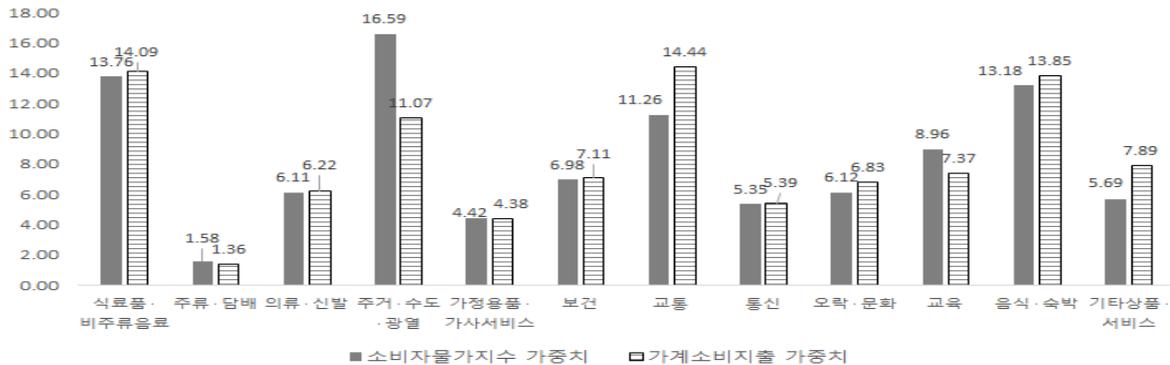
2. 소득계층별 소비자물가 가중치 산출

○ 소득계층별 물가상승률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「가계동향조사」에 나타난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구성과 '소비자물가지수'의 물가가중치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(그림 2) 참조)

- 우리나라 '소비자물가지수'의 항목별 가중치는 기본적으로 「가계동향조사」의 소비지출 자료를 기초로 산출됨
- '소비자물가지수'의 가중치 기준연도인 2017년¹⁾을 기준으로 「가계동향조사」의 소비지출비중²⁾과 '소비자물가지수'의 물가가중치를 비교한 결과, 전체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'주거·수도·광열' 항목과 '교통' 항목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기본적으로 소비자물가는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액에서 '중고차 구입비'를 제외하고 '전월세 보증금의 월세평균가액'을 추가하는 금액을 사용하고 있음
 - 「가계동향조사」의 '주거·수도·광열'³⁾ 항목은 '소비자물가지수'의 '주택·수도·전기 및 연료' 항목⁴⁾에서 '전월세 보증금의 월세평균가액'을 차감하였기 때문에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짐(16.6%→11.1%)
 - 「가계동향조사」의 '교통'⁵⁾ 항목은 '소비자물가지수'의 '교통' 항목에 '중고차 구입비'를 추가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커지게 됨(11.3%→14.4%)
- 따라서 본고에서 산출한 「가계동향조사」를 기반으로 한 물가가중치에서는 '주거·수도·광열'의 물가변화를 과소 반영하고 '교통' 항목의 물가변화를 과대 반영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

〈그림 2〉 소비자물가 가중치 vs 가계소비지출 가중치(2017년 기준)

(단위: 비중 %)



자료: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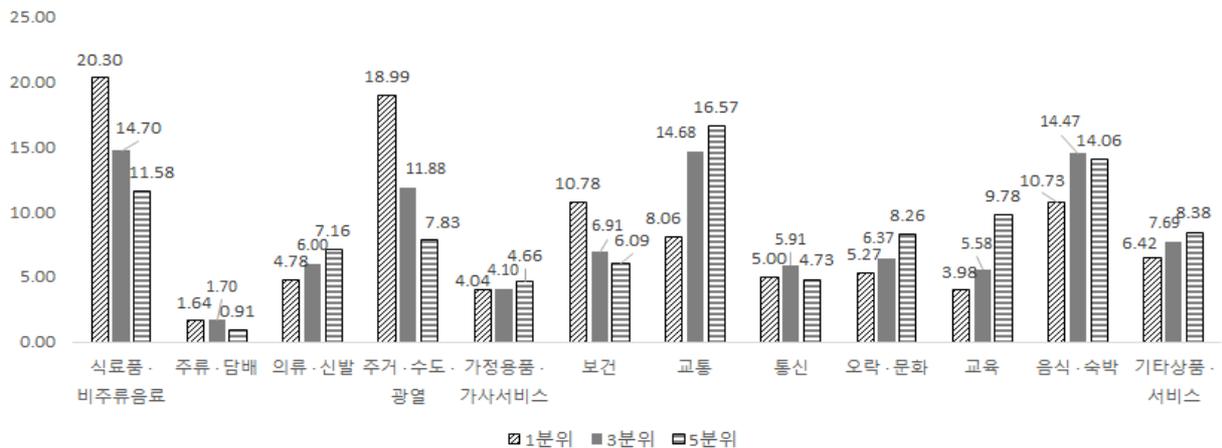
- 1) 현재 발표되고 있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의 기준연도는 2015년이기 때문에 2015년 연평균 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있으나, 가중치의 경우 2017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있음
- 2) 「가계동향조사」의 전국 1인 이상 가계의 소비지출자료(경상)를 활용함
- 3) '주거·수도·광열' 항목은 '실제 주거비', '주택유지 및 수선비', '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', '기타주거 관련 서비스', '연료비'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
- 4) '교통' 항목은 '자동차 구입', '기타 운송기구 구입', '운송기구 유지 및 수리', '운송기구 연료비', '기타 개인교통 서비스', '철도운송', '육상 운송', '기타 운송', '기타 교통 관련 서비스'로 구성되어 있음
- 5) 「가계동향조사」와 소비자물가의 지출목적별 분류는 사실상 동일한 항목명을 사용하고 있으나, '소비자물가지수'의 '주택·수도·전기 및 연료' 항목의 경우는 사실상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「가계동향조사」의 '주거·수도·광열'과 다른 항목명을 사용하고 있음

○ 「가계동향조사」를 기초로 소득계층별 소비지출가 비중치를 산출한 결과, 주거비, 식료품, 교통, 교육, 보건 관련 항목에서 소득계층별 비중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(〈그림 3〉 참조)

- 가계소비지출의 항목별 비중을 소득계층별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소비지출가 비중치 산출의 기준연도인 2017년에 대해서 소득계층별(5분위 기준)로 소비지출을 항목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
 - 저소득인 1분위와 고소득인 5분위의 비중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을 절대값 순으로 나열하면 '주거·수도·광열'(11.17%p), '식료품·비주류음료'(8.72%p), '교통'(-8.51%p), '교육'(-5.79%p), '보건'(4.69%p)임
 - 1분위와 5분위 사이의 차이가 적게 나타나는 항목은 '통신'(0.27%p), '가정용품·가사서비스'(-0.62%p), '주류·담배'(0.73%p) 순으로 나타남
-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비중의 차이가 큰 항목에서 물가 불안이 발생하면 소득계층별로 물가상승률의 차이가 확대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
 - 반면,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비중의 차이가 작은 항목의 경우 물가 불안이 발생해도 소득계층별 물가상승률의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임

〈그림 3〉 소득계층별 물가비중치 비교

(단위: 비중 %)



주: 그림을 단순화하기 위해 5개 분위 중 1, 3, 5분위의 소비지출 비중만을 그래프에 포함하였음

자료: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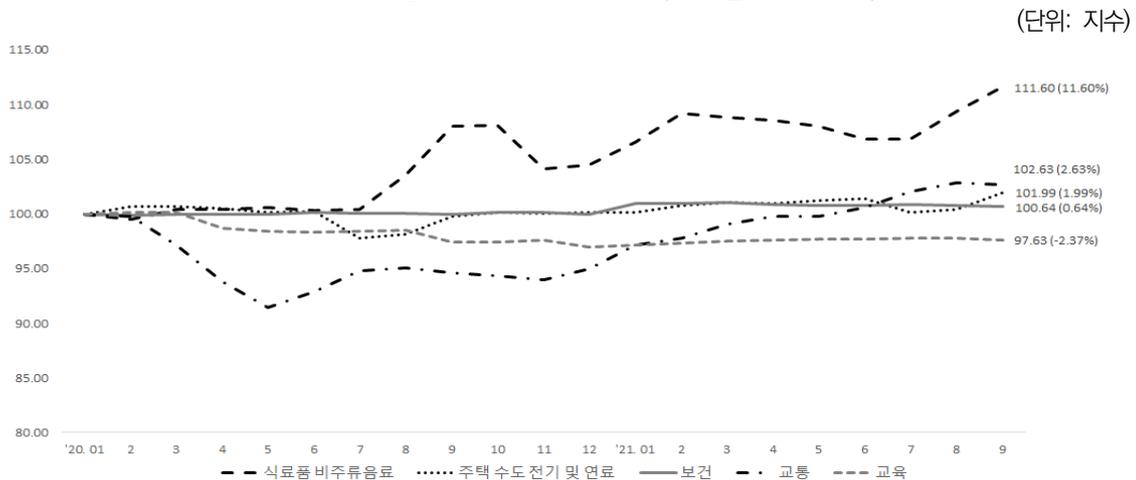


3. 소득계층별 물가상승률 비교

○ 소득계층별 물가가중치의 차이가 큰 대표적인 항목의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, '식료품·비주류음료'의 항목의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(〈그림 4〉 참조)

- 소득계층별 물가가중치는 총 12개 항목에 대해서 산출하였으나 대표적으로 소득계층별로 가중치의 크기에 차이가 많이 나는 5개 항목에 대해서 2020년 1월을 기점으로 하여 물가지수 추이를 살펴보았음
- '식료품·비주류음료' 물가는 2020년 하반기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2020년 9월에는 2020년 1월 대비 11.60%나 상승하며 다른 항목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함
- '교통' 항목은 2020년 5월까지 빠르게 하락한 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, 2020년 1월 대비 상승률은 2.63%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
- '주택·수도·전기 및 연료'('주거·수도·광열'), '보건', '교육' 항목은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1월 대비 상승률은 각각 1.99%, 0.64%, -2.37%를 기록하였음

〈그림 4〉 주요 항목 소비자물가지수 추이(2020년 1월 = 100)



자료: 통계청

○ 코로나19 이후 소득계층별 소비자물가 추이를 산출한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게 나타남(〈그림 5〉 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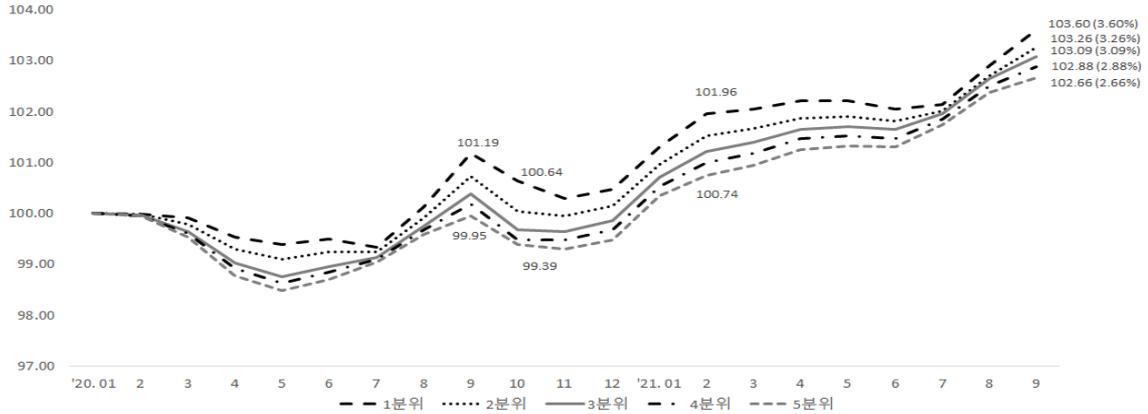
- 소득계층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산출한 결과, 코로나19 직전인 2020년 1월 대비 2021년 9월 상승률은 소득이 낮은 가계일수록 물가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⁶⁾
 - 2020년 1월 대비 2021년 9월 상승률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가 3.60%, 2분위 3.26%, 3분위 3.09%, 2.88%,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는 2.66%로 나타나 1, 5분위의 차이는 0.94%p로 나타남

6) 2020년 1월 대비 2021년 9월 전체 평균 물가 상승률은 '소비자물가지수'의 경우 2.87%이나, 본고에서 「가계동향조사」에 기반해서 산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.97%로 다소 차이가 있음

- 코로나19 이후 초기에는 고소득층의 가중치가 높은 '교통'부문의 물가 하락으로, 이후에는 저소득층의 가중치가 높은 '식료품·비주류음료'의 높은 물가 상승으로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남.
- 1분위와 5분위의 2020년 1월 대비 물가 상승률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대표적으로 2020년 9월, 10월 그리고 2021년 2월에 각각 1.24%p, 1.25%p, 1.22%p로 가장 크게 나타났음

〈그림 5〉 소득계층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(2021년 1월 = 100)

(단위: 지수)



자료: 통계청



4. 시사점

- 코로나19 이후 핵심적인 경제 목표 중 하나가 취약계층의 구제에 있는 만큼 이들 계층의 소득 여건뿐만 아니라 물가 등 소비 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임
 -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였으나, 이들 계층의 물가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이러한 정책 효과가 일정 부분 상쇄되고 있음을 의미함
 - 따라서 취약계층을 위한 효과적인 위기극복지원을 위해서는 일련의 경제 여건 변화가 이들 계층의 실질적인 구매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임
- 저소득층의 소비 비중이 높은 지출 항목은 식료품, 연료 등 필수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물가의 추이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
 - 현재의 물가 불안은 식료품, 에너지, 집세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들 항목에 대한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
 - 주요 농축수산물과 에너지 관련 공공요금 등에서 물가 압력이 구조적으로 누적되지 않도록 관련 수급 및 산업 정책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